

# HIV감염과 애완동물, 계속 키워도 될까?

라\_ 편집실



HIV에 감염되면 몸의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각종 세균, 바이러스 등에 쉽게 감염된다. 감염된 자신이 스스로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에 의해 감염될 수도 있다. 특히 가족으로 생각되는 애완동물로부터 질환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염인 건강을 위하여 지금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가? 미국 CDC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따르면 계속 그들과 함께 생활해도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문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통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위안을 얻어 동물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애완동물로부터 감염질환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HIV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애완동물 키우는 것은 건강한 이들보다 주의할 점들이 많다.

애완동물은 와포자충증(cryptosporidiosis), 주혈원충병(toxoplasmosis), MAC(Mycobacterium avium complex), 그 외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애완동물로부터 전파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만진 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특히 식사를 준비할 때 음식이나 식재료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한다.

애완동물이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건강해 보이지 않는 동물은 만지지 않도록 하며  
방문하기 전 집주인에게 미리 동물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애완동물이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생고기 혹은 덜 익힌 고기는 주지 않도록 하며 화장실 변기물을 마시거나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다른 동물을 사냥하거나 다른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한다.



설사하는 동물은 만지지 않는다. 하루나 이틀 이상 설사가 계속 된다면 수의사에게 보이거나 HIV가 없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동물을 맡기는 것이 좋다. 애완동물이 설사하는 원인을 알아두면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건강하지 않는 동물은 입양하지 않는다. 생후 6개월 이전의 새끼는 가급적 데려오지 않도록 한다. 특히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데려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입양하고자 한다면 동물의 위생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동물의 건강상태를 알기 힘들다면 수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고양이 변기 관리는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임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하며, 부탁할 사람이 없어 직접 해야 할 경우에는 비닐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하며, 청소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버려진 동물은 만지지 않는다. 버려진 동물의 경우 감염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묻거나 핥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고양이가 핥기지 않도록 하며, 핥았을 때는 즉시 상처부위를 비누로 잘 씻어내도록 한다.

애완동물이 본인의 상처나 베인 부위, 입을 핥지 않도록 한다.

애완동물과 뽀뽀하지 않는다.

애완동물에게 버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뱀, 도마뱀, 거북이 등과 같은 파충류는 되도록 키우지 않는다. 만약 파충류를 만졌다면 즉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감염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수족관이나 동물우리를 청소할 때는 비닐이나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일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손을 씻도록 한다.

애완동물이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 동물은 만지지 않도록 하고 방문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동물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